

# 共產主義体制의 內在的 危機 要因에 關한 研究

- 蘇聯 및 東歐를 中心으로 -

韓 昌 榮  
高 性 俊  
金 恒 元

## 〈目 次〉

- I. 問題의 提起
- II. 共產主義 體制變化의 理論的 接近
- III. 共產主義體制의 變動過程
- IV. 共產主義體制의 內在的 危機要因의 本質
- V. 結 論 : 共產主義의 어두운 未來

## I. 問題의 提起

19세기 유럽의 産業革命 과정에서 資本主義 경제체제가 초래한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를 목격하고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社會主義 理念이 탄생한 이후 실제 정치에서 이를 적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도 100년이 지났다.

올해는 그 대표적 理論家인 마르크스(Karl Heinrich Marx)가 세상을 떠난지 100년째 되는 해다. 만약 마르크스가 무덤에서 나와 오늘날의 共產世界를 본다면 무엇이라고 할까? 그가 다시 살아날 수 없음을 뻔한 일이다. 그러나 아마 그는 무덤에서 일어날 수 있다면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대부분의 생을 바쳐 창시한 「科學的 社會主義」가 제대로 전개됐는가를 그 자신이 확인해보고 싶을테니까 말이다.

마르크스는 아마 1883년에 자신이 죽는 후 자신의 敎理의 자진 追從者들이 전세계를 향한 행진을 하고 있음을 보고는 기뻐할지 모르나, 실제에 있어서 자신의 투쟁계획을 따르는 경우가 歷史上 없었으며 지금도 없다는 사실에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sup>1)</sup> 그는 「유로코뮤니즘」(Eurocommunism)이 세계 최대의 「마르크스主義」 국가인 蘇聯과 관련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쇠퇴하고 있음을 알때 어떨까? 또한 마르크스는 19세기 중엽에 엥겔스(Friedrich Engels)가 배움을 얻었던 「만체스터」 직물공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인류사상 최초의 공산주의국가인 소련의

※ 이 論文은 1982年度 文敎部 學術研究造成費에 의하여 研究되었음.

1) TIME, 1982.1.4. "Communism: The Specter and The Struggle", p.28.

「카마」江 트럭공장에서는 노동자들의 직장에 대한 소외감이 적어도 큰 문제가 되고 있음에는 어떤 입장을 취할까? 「전세계의 노동자여, 단결하자」는 그의 외침에는 아랑곳 없이 마르크스-레닌主義를 代表한다고 서로 주장하는 경쟁국가들이 서로 상대방을 修正主義者이며 宗派主義의 죄과를 범하고 있다고 비난할 뿐 아니라 전쟁까지 벌이는 사태를 어떻게 설명하려 할까?

그리고 마르크스가 “노동자의 낙원”일 것이라고 주장했던 共產社會의 하나인 폴란드에서 自由勞組運動이 일어났음을 보며 프롤레타리아 革命論을 수정하지 않고 주장할 수 있을까? 올해 6월 하순 教皇「요한 바오로」2세가 그의 조국 폴란드를 방문중 교황이 가는 곳이면 어디 서건 수십만 때로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의 주변에 모여들어 無言의 찬양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심정으로 교황이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음을 보고 “宗教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외쳐대었던 그는 어떤 생각이 들까? 2)

분명 그는 시들어 가고 있는 마르크스主義와 그의 예언과는 다른 공산세계를 보고 末年에 “나는 마르크스主義者가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될정도 이상으로 실망하고 있을 지 모른다. 아마 그는 “내가 살아있을 당시 예측했던 일들이 이렇게 거꾸로 돌아갈 줄이야”라고 땅을 치며 통탄할 지 모른다. 3)

오늘날 世界에서 共產主義의 理念을 現實化하려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共產圈의 실상은 공산주의체제의 본질문제로 환원된다. 1980~81년의 폴란드 自由化運動은 끝내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하고 좌초되었지만 여기서 뚜렷이 드러난 문제점들은 결국 現代共產主義의 어두운 未來와 연관되며 또 그 脫神話化過程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勞働者の 天國〉과 平等의 神話는 분노한 노동자의 저항앞에서 虛構임이 밝혀진 것이다. 공산주의 체제의 과도한 集權化와 官僚制化에 공산주의체제의 주인공인 노동자 스스로가 기대를 단념하고 말았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고 하겠다. 4)

폴란드事態는 비단 폴란드 한 나라에 국한된 현상에 관한 것이 아니라 東歐共產諸國 내지는 잠재적으로 모든 공산국가들이 안고있는 內在的 危機 要因이며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결정적 도전이라는 것이다.

本 研究은 우선 공산주의체제의 변동을 理論的으로 접근하고 실제의 변동과정을 살펴본 후 각 分野에서 보여주고 있는 體制危機의 本質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2) Newsweek, 1983.7.4. “The Pope in Poland: Now, the Realities” pp.10 ~ 13.

3) Newsweek, 1983.3.21. “The Withering Away of Marx”, p.50.

4) 安秉永, 「現代 共產主義研究」(서울:한길사, 1982) p.256.

## II. 共產主義 體制變化的 理論的 接近

### 1. 變動發展模型

共產主義 體制的 變化 問題에 探究의 方向을 集約시키고 있는 方法論的 試圖 中 대표적인 것의 하나가 이른바 ‘動員政權’ (mobilization regime) 概念<sup>5)</sup>이다.

一定한 政治體系가 革命的 ایده올로기를 표방하는 경우 흔히 두가지 文化內容을 重視하게 된다. 그 중 하나는 ایده올로기가 追求하는 궁극적인 유토피아의 影像으로서의 目標文化 (goal culture)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目標文化에 接近하기 위한 政策規範의 內容을 지닌 轉移文化 (transfer culture)이다. 뒤늦게 共產化의 길을 걷는 初期共產政權들은 轉移文化의 內容을 확정함에 있어 蘇聯을 準據集團으로 삼게되나 이후의 發展狀況에 따라 적지 않은 變調가 있게 마련이다.<sup>6)</sup>

일반적으로 볼 때 共產化된 후, 初期段階의 革命政權들은 經濟發展을 가장 시급한 또 포괄적인 轉移文化目標로 設定하고 이를 成就하기 위하여 動員體制(mobilization system)을 構築한다.

「존슨」에 의하면 이와 같은 편중적인 動員化 政策은 體制的 不均衡發展, 특히 機能的分化和 複合성이 增大된 社會와 全體主義的인 統制가 逆機能하게 된 政治間에 심한 不均衡狀態를 誘發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不均衡發展에 대한 處方은 역시 리더쉽에 의해 規定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工業化 以後의 動員政策은 社會의 새로운 機能的 要求들을 轉移文化 目標 속에 흡수하는 ایده올로기적 革新의 形態를 취하게 된다. 결국 共產主義 政治體系의 動態的 性格은 「 ایده올로기에 의한 現實의 矯正」과 「現實에 의한 ایده올로기의 矯正」<sup>7)</sup>이 반복, 순환되는 過程으로 表現된다는 것이다.

「로웬탈」(Richard Lowenthal)은 共產主義 政治體系 變化的 근본적인 原因을 ایده올로기가 指向하는 理想主義的 目標과 工業化 또는 發展이라는 目標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目標의 二重性」(dualism of goal)<sup>8)</sup>에서 찾고 있다. 「로웬탈」에 의하면 그와 같은 두가지 상호

5) Richard Lowenthal, "Development Vs. Utopia in Communist policy", in Chalmers Johnson, (ed.), Change in Communist Systems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0), p.35.

6) 安秉永, "北韓의 政治過程", 金雲泰外, 「韓國政治論」(서울: 博英社, 1977), p.675.

7) Chalmers Johnson, "Comparing Communist Nations", in Johnson, (ed.) op. cit., p.18.

8) Richard Lowenthal, op. cit., p.50.

충돌하는 目標은 구체적인 政策에 있어서 계속되는 葛藤의 形態로 나타나며 그와 같은 계속되는 葛藤은 결국 理想主義에 대한 近代化主義의 勝利로 낙착된다.

動員政權이 일정한 段階에 이르면 대략 全體主義의 動員體制의 解體可能性이 成熟되는데, 이러한 變化의 端緒는 첫째로 革命的 엘리트의 官僚制化現象(bureaucratization)과 둘째 全體社會의 複合성과 機能分化的 增加現象이다.<sup>9)</sup> 이들 두가지 變化促進要因은 실상 動員體制가 전혀 意圖하지 않았던 狀況展開의 결과로서 動員政權의 近代化戰略이 어느 정도 성공하여 公認된 動員分野(經濟)에서 기대했던 變化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그 참모습이 드러나는 것이다.

## 2. 産業社會模型

共產主義의 動員政權의 近代化政策이 實現되어 그 社會가 産業社會로 轉化되는 경우, 그 社會가 보여 줄 未來像이 어떤 것이냐 하는 문제는 많은 학자들의 관심이 되었다. 이 문제에 대한 解答을 꾀하는 理論模型이 이른바 産業社會模型(industrial society model)이다.

産業社會模型의 특색은 大規模産業社會의 特徵的 面貌인 크기, 複合性, 形態 등과 教育, 階層化, 都市化, 커뮤니티 組織, 社會的 流動性, 매스컴 등 諸般의 社會領域에 맞추면서 이들 要因이 社會秩序와 그 構成員의 行態에 미치는 影響力을 分析하러 한다.<sup>10)</sup>

共產主義體制에 있어서 經濟發展段階나 技術의 水準이 政治的 發展 또는 政治的 變化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諸側面에 유의하고 있는 「엑스타인」(Alexander Eckstein)은 어떤 政體(polity)의 성격을 일정한 經濟的 發展段階에 있어서 體制에 대한 諸要求(demands)와 그에 대처하는 體制의 能力간의 適合化 機能으로 規定하고 있다.<sup>11)</sup>

로스토크(W. W. Rostow)와 페리(Albert Parry) 및 엑스타인(Alexander Eckstein) 등의 연구들은, 대체로 共產政治體制에 있어서 産業化의 過程은 社會全般에 걸친 複雜性, 環狀性, 財貨와 用役의 生産에 있어서 相互依存을 가져오고 이들은 또한 技術과 科學的 熟鍊을 급격히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심화되는 勞動의 分化和 職業의 機能的 分화가 政府·企業·黨·社會團體 등 社會全般에 걸쳐 管理的 官僚制(managerial bureaucracy)를 필요로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技術的·職業的·管理的 엘리트가 생산된다고 그들은 지적한다.<sup>12)</sup>

經濟와 技術發展의 수반 현상으로 革命엘리트가 官僚化되고, 社會적으로 技能的 分화가 나타나며, 社會的 複合性的 結果 利益의 다양성이 表出된다. 아이러니할 하기도 共產主義 制度 變

9) 安秉永, op. cit., p.676.

10) Ibid., p.677.

11) Alexander Eckstein, "Economic Development and Political Change in Communist Systems", World Politics, Vol. XXII, No. 4, (July 1970), p.480.

12) 金學俊, 「蘇聯政治論」(서울:一志社, 1980), p.349.

化의 근원은 全體主義的 動員의 結果 工業化가 어느 정도 이룩된 社會에서 배태되어 成長한다는 점이다.

이 模型은 몇 가지 중요한 疑問點을 갖고 있다. 첫째, 급속히 획득되고 全人口의 한 부분에 의해서만 채택된 近代化의 特性은 결국 하나의 걸치장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疑問이다. 둘째, 全體主義는 바로 産業化와 近代化의 產物이었다는 점이며, 전체주의적 獨裁者 역시 技術상의 革新과 대규모 建設計劃 및 近代化 그 자체를 추진하고 또 그것을 獨裁의 名分으로 삼아 왔다는 점이다.<sup>13)</sup>

이러한 弱點에도 불구하고, 産業社會模型은 收斂理論 (convergence thesis)에 대한 이론적 根據를 제시하고 있다.

收斂理論은 앞으로 自由主義體制과 共產主義體制가 同質化 내지 同形化해 가는 과정을 밝히는 理論으로서, 대략 그 論據로서 現代技術文明과 經濟의 비약적 발전과 이에 따른 産業社會의 共通의 文化要因이 강조되고 있다.

이 理論은 그 內容에 있어서는 差異가 있으나, 소로킨 (Pitirim Sorokin), 로스토우 (W.W. Rostow), 아롱 (Raymond Aron), 갈브레이스 등에 의해 제시되었고 蘇聯의 反體制 科學者 사하로프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經濟學者들은 대체로 收斂理論의 經濟的 論據를 重視한다. 이들은 고전적 資本主義는 국가적 차원의 企劃과 規制를 통하여 社會主義에 접근하고 공산주의는 分權化와 生産技術과 管理에 있어 專門的 能力과 부단한 刷新을 요구하게 되며, 이는 테크노크라트의 成長과 脫「이데올로기」의 경향을 자극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經濟活動의 效率化를 위한 閉鎖社會의 개방화도 兩體制의 接近에 기여하는 주요 要因으로 예거된다.

한편, 政治學者와 행정학자들은 그 論究의 초점을 民主化, 官僚制化의 문제로 集約하고 이를 體制의 근본적인 變革問題와 관련지워 논의한다. 특히 이들 問題는 共產主義體制에 있어서 엘리트와 大衆 내지는, 政治體와 社會體制間의 聯關構造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한 가지 뚜렷한 점은 수렴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體制接近의 기본적 요인으로서 科學技術革命과 經濟發展을 들고 있으며 대부분의 問題點은 이에서 演繹되는 것으로 認識한다는 점이다.<sup>14)</sup>

그러나 이 理論 역시 이론적 또는 실제적 弱點을 갖고 있다. 첫째, 蘇聯의 공식적 입장이 보는 이 說의 弱點을 지적하기로 한다. 蘇聯의 공식적 立場에 의하면, 蘇聯體制의 사회·경제적 및 정치적 上部構造는 <非社會主義>體制의 그것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둘째, 收斂說은 일종의 經濟的 決定主義로서 生産力을 政治體制의 일차적 決定要因으로 보고 있다. 또한 收斂

13) Ibid., p.307..

14) 安秉永, 「現代共產主義研究」, op. cit., p.282.

說은 蘇聯의 政治體制가 西歐의 政治體制와 가까와져서 兩者가 平和共存과 平和協力을 이룩하기를 期待하는 사람들의 念願의 表示이지 과학적 證據에 바탕을 둔 것은 아니다. 경제, 科學과 技術 및 工場制度가 과연 공통의 政治體制를 가져 올 單一産業管理形態를 필연적으로 만들어내느냐에 대해서는 疑問이 없을 수 없다.<sup>15)</sup>

### 3. 政治文化論的 分析

共產主義體制 研究에 있어서 政治文化論的 分析이 중요시 되는 背景은 무엇보다도 共產主義體制 자체가 革命的인 動態性을 갖고 있으며 또 그와 같은 體制의 變化가 公式的인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說明되고 있다는 본래의 性格에서 연유되는 것 같다.

革命的인 變化의 過程을 겪는 政治體制의 研究에서는 우선 政治權力의 組織形態를 보여 주는 리더쉽의 性格이나 政治權力과 社會의 關係를 규정해 주는 이데올로기의 機能, 그리고 政策決定의 形態를 특징지워주는 政治過程이 서로 分離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점에 유의하게 된다. 이와 같이 革命的 리더쉽의 性格이나 이데올로기의 進化機能 또는 政治過程에 초점을 맞추어 共產主義體制의 變化에 接近하려는 立場은 어차피 政治文化論的 分析을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sup>16)</sup>

한편 共產主義體制 研究에 있어서 政治文化論的 分析이 중요시 된 또 하나의 背景은 共產主義體制間의 多樣性에 대한 認識과 밀접한 關係를 갖고 있다. 政治文化論的 分析은 政治體制의 公式的이고 構造的인 측면과 아울러 非公式的인 側面을 고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政權의 課題와 이데올로기적인 標榜(ideological tenets) 또는 課題를 再定義해가는 政權의 對應과 같은 政治文化를 決定해주는 諸變數의 多樣性을 제시해 줄 수 있는 長點을 갖는 것이다.

소비에트 體制의 特徵이라고 생각되는 많은 制度—集中화된 經濟, 自治的인 集團活動의 결여, 시민들의 활동은 물론 信念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政府, 社會의 義務에 대한 集團的인 規制—의 起源은 러시아 역사 속에 놓여 있다. 그리고 현재 그것들의 大衆性은 煽動과 宣傳에 의해서라기 보다 傳統的인 政治文化의 지속적인 영향에 의해서 더 잘 설명된다.

蘇聯體制가 마르크스—레닌주의 價値에 대해서 支持를 얻었던 成功의 정도는 소련 시민들의 政治的 信念과 기존의 傳統的인 政治文化 속에 있는 中心的 要素들 사이에 一致의 정도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그 一致는 소련 體制의 政治教育計劃의 產物이라기 보다는 歷史的 環境의 產物이다. 蘇聯市民들은 마르크스—레닌주의자의 이데올로기 訓練의 산물이기 보다는 압도적으로

15) 金學俊, op. cit., pp.308 ~ 309.

16) 李啓熙, “蘇聯體制의 變化和 研究方法의 摸索”, 「蘇聯政治의 理解」(서울:경남대학교 출판국, 1977), p.51.

분명한 歷史的 經驗의 產物로 남아 있다.<sup>17)</sup>

蘇聯의 지배적인 政治文化는 革命以前의 시대로 부터 이어 받은 政府에 대한 定向의 類型에 의해서 주로 형성되었다. 그리고 그 體制가 1917년 이래 추진했던 公式的인 政治文化는 단지 제한된 정도로 受用되었다. 그러나 傳統的인 政治文化는 성격상 강한 集團主義的이고 福祉國家主義的이었다. 그것은 많은 制度和 慣習에 대한 以前의 支持가 소비에트 政府形態와 關係를 가질 수 있을 만큼 體制는 安定되고 正統性이 있는 것이다. 즉 政治文化와 政治體制 사이에 一致性이 있는 것이다.

革命以前 시대에 있어서 政府에 대한 定向들은 고도로 傳統的인, 즉 共同社會的인, 類型의 社會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그 안에는 集團所有와 耕作에 있어서, 인구의 대부분이 고용되었던 土地에 대한 統制에 기반을 둔 상당한 정도의 社會의 自動調整이 있었다. 蘇聯體制의 集團主義的이고 福祉國家的인 많은 制度들은 政府에 대한 대중적인 期待들에 확고히 뿌리박혀 있는 것 같이 보이며 그리고 變化에 상당히 저항하는 것 같다. 그들은 두가지 要因, 즉 그 체제가 달성하려는 느리지만 지속적인 生活水準의 향상, 그리고 단지 소비에트 統治로서 알려져 있는 것들이 社會내에서의 相對的인 比率이 점차적인 증가 등에 의해서 支持되고 있다.<sup>18)</sup>

東歐에서도 傳統的인 政治文化는 持續되고 있는 것 같다. 일반적으로 過去를 現在의 마르크스주의자의 觀點에 의하여 고쳐쓰거나 낡은 歷史的인 象徴을 새로운 것으로 대치시키려는 경향은 國民들 가운데는 거의 없거나 없다. 폴란드와 체코의 경우에는 명백하며, 헝가리에서도 1956년에 共產主義 象徴에 대한 거부와 과거의 民族主義的인 象徴의 회복은 명백한 것 같이 보인다. 西歐 自由民主主義의 價値에 대한 愛着의 強度는 歷史나 國民들의 經驗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을 넘는 것 같다. 만일 그들의 政治文化가 共產主義 經驗에 의하여 變化되어 왔다면, 그것은全體主義的인 共產主義 모델로 부터 反對方向으로 變化해 왔다. 유고에서는, 스탈린주의적인 獨裁政治의 經驗이 매우 짧다. 유고가 共產主義下에서 經驗한 것은 훨씬 더 많은 多樣性和 融通性이 주어지는 社會 政治的 組織의 형태이다. 거기에서는 反體制에 대한 強壓은 산발적이고 덜 엄격하였다. 國民들의 상당한 부분이 그들의 政府와 自由 및 平等의 價値를 同一視할 준비를 보여 주었다. 유고 國民들의 價値, 期待와 政府의 慣例 사이에 다른 東歐社會에서 보다도 훨씬 더 적은 不一致를 보여준다.<sup>19)</sup>

소련에서, 스탈린 死後 이래 變化의 相對的인 결여는 러시아의 傳統과 慣例의 일치를 나타낸다. 지금까지의 政治的 變化는 權威主義的인 정상적인 짜리스트 수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스탈

17) Archie Brown and Jack Gray, Political Culture and Political Change in Communist States (New York: Holmes Meier Publishers, Inc., 1979), p.49.

18) ibid., pp.56 ~ 57.

19) ibid., pp.265 ~ 266.

린 주의의 지나침의 포기로 記述될런지 모른다.

가장 넓은 관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共產主義 國家에서 政治的 變化的 結果는 우리가 그들의 以前의 政治的 經驗과 政治文化에 대해서 아는 것과 일치해 왔다는 것임에 틀림없다.<sup>20)</sup>

### III. 共產主義體制的 變動過程

#### 1. 共產主義體制的 類似性和 全體主義的 動員

共產主義 國家의 중요한 類似性은 社會 經濟的 生活의 세계의 중요한 面에서 발견된다. 첫째, 公式的 이데올로기로서의 마르크스-레닌주의 (Marxism - Leninism), 둘째, (유고는 예외지만) 生産手段의 國家所有形態와 그들의 經濟關係는 國家社會主義의 類型을 유지한다. 셋째, 政治的 組織은 蘇聯의 模型(共產黨의 지도적인 役割과 共產黨내에서의 權力的 集中을 포함해서)을 사용하고 있다.<sup>21)</sup>

포겔(Erza Vogel)에 의하면, 모든 權力을 장악한 共產黨은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方法을 사용한다. ① 權力을 잡은 후에 黨의 再定向(예컨데, 統一戰線속에서 黨을 지지했던 人民들을 점진적으로 제거), ② 組織形成(예컨데, 靑年同盟과 후보위원 체제), ③ 農業國有化와 集團化의 政治的 問題解決, ④ 政治生活의 構造化(예컨데, 水平的 또는 垂直的 組織 사이의 긴장들), ⑤ 目標設定(예컨데, 5개년 계획), ⑥ 人物의 불규칙적인 交替(예컨데, 숙청) 등이다.<sup>22)</sup>

최초의 共產主義 國家로서 蘇聯의 歷史的 經驗은 중요하다. 그것은 불가피하게 모든 다른 共產主義 國家를 위해서 準據集團으로 기여한다. 소련의 중요한 轉移文化(transfer-culture) 目標들 중에는 共產黨과 그 指導者의 權力獨點의 유지, 國防을 위해서 重工業의 강화, 農業集團化, 生産手段의 國有化, 消費者 主權과 市場의 제거, 그리고 技術的으로 유능한 勞動力 訓練 등이 있었다. 모든 이 目標들은 후에 共產主義 體制에 의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1930년대, 또는 부분적으로 1940年代에는 특수한 蘇聯의 共產主義의 普遍化가 활발히 추진되는 시기였다. 이 때에는 蘇聯 以外 共產黨들의 스탈린화를 보여주었다. 즉 東歐에 대해서는 蘇聯式의 共產主義가 강제로 수출되고, 中國, 韓國, 越南에서는 보다 東洋的인 레닌主義的인 마

20) Ibid., p.267.

21) Ibid., p.14.

22) Chalmers Johnson, op. cit., pp.27 ~ 28.



르크스主義 適用이 자연발생적으로 확대되었다.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한 國際的 共産主義는 各國의 特殊事情이 고려되지 않은채 소련의 經驗이 그대로 모방되었다. 사실 蘇聯은 「이데올로기」와 地域的 條件 사이에 존재하는 큰 갭 때문에 一體的인 共産主義를 더욱 강력히 主張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中共은 1958년 까지, 北韓은 1960년대 후반 까지 소련의 「사회주의 건설」 모델을 그대로 복사하여 채택하였다.<sup>23)</sup>

스탈린 死亡 以前의 共産主義體制의 특징을 알아 보기 위해서 全體主義 모델을 分析할 必要性이 있다. 이 全體主義 概念은 주로 스탈린 治下의 蘇聯政治體制가 보여 준 獨特한 政治現象 특히 全人民을 共産主義 建設이라는 이데올로기적인 目標로 動員하는 강제적인 權力의 本質과 獨占性을 分析하는 것이 주가 되었다. 蘇聯政治體制의 그와 같은 全體主義的 特性을 가장 대표적으로 定義한 것은 「프리드리히」(Carl J. Friedrich)와 「브르제진스키」(Zbigniew Brzezinski)의 公式이다. 그들에 의하면 全體主義體系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特徵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첫째, 敎義體系로 구성된 公式的 이데올로기, 둘째, 單一人, 獨裁者 및 全人口中の 小數로 구성된 單一大衆政黨(이 경우, 黨은 階位的으로 組織化 되고 政府組織과 완전히 융합되고 있음), 셋째, 黨의 指導를 강력히 支持하기 위한 恐怖的 警察의 統制體系, 넷째, 新聞, 放送, 映畫 등의 효과적인 모든 매스커뮤니케이션에 대한 黨의 完全獨占, 다섯째, 軍에 대한 거의 完全한 獨占的 統制, 여섯째, 全體經濟의 中央集權的 統制와 指導 등이다.<sup>24)</sup>

이 모델은 共産主義體制下에서의 기본적인 變化를 설명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한다. 위에 제시한 諸特徵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全體主義의 본질적 기준을 충족시키는 어떤 體제도 무조건적인 軍事的 敗北에 의하지 않고는 기본적으로 變化할 수 없는 방향으로 그 자신의 다이내미즘(dynamism)에 의해서 추진된다고 생각되었다. 사회의 全體的인 統制는 기본적인 變化에 영향을 줄 수 있을런지 모르는 反對勢力을 위한 여지를 남겨 줄 수 없다.

스탈린 死亡 이후 蘇聯政治體制의 내부적 變化가 촉진됨에 따라 靜態的인 全體主義概念은 그러한 變化를 설명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는 難點이 들어나게 되고 共産圈內 民族主義的 發展의 강조는 分派的 共産主義(Sectarian Communism)의 樣相을 露呈하여 스탈린 시대와 같은 團一體(monolithic)的인 共産主義의 概念은 그 妥當性을 크게 상실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全體主義라는 용어는 共産主義 現實을 이해하는 데 부적절한 것으로 거부한다. 몬티아스(John Michael Montias)는, 전체주의 모델은 共産主義와 西歐社會 사이의 차이를 강조하는 데 기여할런지 모르지만, 그것은 共産主義體制 사이의 비교를 위해서는

23) 金甲喆, 北韓共産主義體制의 變化展望과 開放誘導方案研究, 國土統一院. pp.3 ~ 4.

24) Carl J. Friedrich and Zbigniew Brzezinski,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rev. ed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5), pp.9 ~ 10.

거의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sup>25)</sup>

全體主義 모델의 弱點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스탈린 時代 蘇聯政治體制의 特徵을 分析基準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탈린」以後의 變化와 같은 蘇聯政治體制의 動態的인 過程을 설명해 주지 못하는 말하자면 「歷史적으로 制約된 모델」<sup>26)</sup>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共產主義體制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全體主義 모델이 전혀 無價値하다는 것은 아니다. 「잉켈리스」는 다음과 같이 全體主義 모델의 價値를 認定하고 있다.

「全體主義理論 모델은 여전히 높은 妥當性을 갖고 있다. 즉 그러한 모델을 念頭에 두고 있으면 우리는 蘇聯이 그러한 모델로 부터 얼마나 이탈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sup>27)</sup>

## 2. 共產主義體制와 變化

존슨(Chalmers Johnson)에 의하면 共產主義 世界에서 일어나고 있는 基本的인 變化는, (1)政治體制 構造에 있어서 變化는 일반적으로 一人의 자율적인 獨裁者를 가지고 있는 一黨體制로 부터 集團指導體制 및 黨主導하의 民族戰線으로 이행되며; (2) 일반적으로 고도의 테러의존 경향으로 부터 중간 수준과 낮은 의존으로 엘리트가 인정하는 社會行動을 끌어내는 데 테러에 의존에 있어서 變化; (3)經濟體制 構造에 있어서의 變化는 일반적으로 中央集權的인 命分經濟로 부터 半中央集權的인 管理體制와 市場社會主義에로; (4) 外部로 부터 강요된 共產主義體制의 경우, 衛星國에서 顧客의 위치로, 더 나아가서 民族共產主義 國家로서의 獨立的인 위치로 변한다는 점이다.<sup>28)</sup>

體制變化를 일으키는 要因들을 보면, 첫째는 逆技能的인 效果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명해지고 결국은 “體制管理者”들에게 기본적인 改革을 시작하도록 강요하는 體制에 內在하는 要因들이 있다. 둘째는 우세한 體制에 의하여 간접적으로만이 영향을 주는 發展要因이 工業化와 經濟發展의 추진으로 體制를 점차적으로 非效果的인 것으로 만든다. 셋째는 戰爭, 共產主義의 지배를 위협하는 내부적인 無秩序, 또는 다른 “包圍攻擊條件들”(Siege Conditions) 등과

25) Dankwart A. Rustow, "Communism and Change," in Chalmers Johnson, (ed.), op., cit., p.351.

26) Alex Inkels, "Models and Issues in the Analysis of Soviet Society," Survey, No.60 (July 1966), Reprinted in Richard Cornell, (ed.), The Soviet Political System: A Book of Readings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1970), p.16.

27) Ibid., p.23.

28) Chalmers Johnson, op. cit., p.3.

같은 外生的인 要因들이 工業化와 再武裝 및 經濟를 運용하는 데 準軍事的인 方法을 쓰도록 촉진할런지 모른다. 반대로, 이들 外部的인 壓力이나 위협의 제거는 지도자들로 하여금 이런 方法들을 포기하게 할런지 모른다. 마지막으로, 經濟問題들에 대한 유토피아적인 解決에 대해서 최고 指導者의 偏愛나 비교적 경제적으로 安定時期 이후에 증가하는 行政官僚主義의 權力에 대해서 관용하려는 데 대한 躊躇과 같은 主觀的인 政治的 要因들이 있다.<sup>29)</sup>

共產主義體制的 變化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특히 體制 밖으로 부터, 즉 國際的인 脈絡으로 부터 나오는 영향력을 무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스탈린 시대에 警察, 軍隊 및 黨과 같은 蘇聯 官僚集團의 영향은 東歐의 대응하는 集團들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결정적이었다. 더우기, 1948년 이후에 유고슬라비아를 제외하고는 모든 東歐 共產國家들이 러시아 모델을 모방하려는 정책 때문에, 東歐에서 여러 集團의 行動과 運命은 다소간 대응하는 蘇聯 集團의 운명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非스탈린化가 후르시쇼프에 의해서 도입되었을 때, 이 새로운 方向은 以前의 衛星國들에 대해서 깊은 영향을 주었다. 이 일반적인 현상에 대한 고전적인 설명은 1948년 8월 侵攻 前後 체코의 경우이다.<sup>30)</sup>

共產主義 體制的 變化는 對內外的인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① 환경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共產엘리트에 의한 「위로부더의 변화」와 ② 民主化를 요구하는 人民大衆의 「밑으로 부터의 변화」와의 상호작용의 產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은 공산주의 체제가 변모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開放的 民主主義 體制로 변할 수 없다고 하는 한계점이다.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 체제에서의 경제적, 정치적 또는 사회적 변화는 動員體制的 지배자들이 사회적 불균형을 改善하기 위한 企圖로서 그리고 共產主義 엘리트의 政治的 目標과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行動綱領間的 현격한 괴리를 좁히려는 노력의 結果로서 發生하게 된다는 점이다.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共產主義 體制的 多樣성과 變化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經濟發展水準, 政治文化의 타입, 權力掌握樣式, 國際環境과 指導者의 個性 등을 체계적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연결시킬 뿐만 아니라 이것들의 相互關係의 발전을 複合的인 因果의 繼起的 過程에서 分析해야 할 것이다.

### 3. 動員段階와 後期動員段階

29) John Michael Montias, "Types of Communist Economic Systems", in Chalmers Johnson, (ed.), op. cit., p.128.

30) H. Gordon Skilling, "Group Conflict and Political Change", in Chalmers Johnson, (ed.), op. cit., pp.232 ~ 233.

마이어는 초기의 共產主義 政治體制의 形成期로 부터 그 후의 發展繼起過程에 이르는 현 단계까지 體系的으로 分析할 수 있는 概念的틀을 제시했다. 그는 대부분의 共產主義 政治研究가 體系形成(System-building)이라고 불리우는 過程에 편견적으로 사로잡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모든 革命은 세가지의 特徵的 諸局面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그 첫째가 體系破壞(System-destruction)의 局面, 두번째가 다양한 종류의 無秩序, 敗北 및 後退 등으로 나타나는 空白期(interregnum)의 局面, 세번째가 體系形成의 局面 등이다.<sup>31)</sup> 이 局面에서 새로운 社會秩序가 확립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共產主義 體制의 變化를 動員段階와 後期動員段階의 측면에서 다뤄 보기로 한다.

### 1) 動員段階

애퍼(David E. Apter)는 共產體制를 포함하는 현대의 權威的 政治體制를 「動員體制」(mobilization system)로 규정하였다. 즉 그는 모든 政治體制를 正統性的 類型, 體制에 대한 忠誠心, 決定的 自律性, 權威의 配分, 이데올로기의인 표현 등에 따라 動員體制, 近代化體制, 協商體制(reconciliation system)로 類型化하고 있다. 「애퍼」의 설명에 따르면 오늘날 共產 政治體制는 극단적인 動員體制的 典型이며 그 特徵은 다음과 같다. ① 正統性的 類型에서 볼 때 階序的 權威(hierachical authority)를 특징으로 한다. ② 體制에 대한 人民의 全體的인 服從 또는 忠誠을 강조한다. ③ 決定過程의 自律性이라는 면에서는 戰術的인 融通性을 보여준다. ④ 權威의 分配는 統一主義(unitarianism)를 취한다. ⑤ 이데올로기의인 表現은 特化(specialization) 되고 있다.

動員이란 社會 안에 있어서 모든 資源에 대한 國家의 統制力 獲得을 수반한다. 그러나 「動員段階」는 共產主義體制가 다른 諸目標과 要求를 희생하면서도 어떤 중요한 諸目標(예컨대 產業化)에의 指向을 위해서 모든 필요한 資源을 投入함으로써 決定的 突破를 企圖하는 단계를 의미한다.<sup>32)</sup>

動員段階에서 엘리트는 社會經濟的 關係와 개인의 人間性的 근본적인 變形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共產主義 政策決定者들은 社會的 豫防法과 體制範圍의 일반적인 “疑心の 制度化 (institutionalization of universal suspicion)”를 좋아하게 된다.<sup>33)</sup>

31) Alfred G. Meyer, "The Comparative Study of Communist Political Systems", Slavic Review, XXVI, No.1 (Horch, 1967), p.49, 李容弼, "共產主義 政治體系의 比較分析", 「北方研究論叢」, 第一卷 第一號(1975), p.15. 再引用.

32) David E. Apter, Some Conceptual Approaches to the Study of Modernization (New Jersey: Prentice - Hall, 1968), pp.272 ~ 294.

33) Alexander Dallin & George W. Breslauer, Political Terror in Communist Systems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 Press, 1970), p.25.

共產主義體制가 權力을 장악한 후에 그 體制的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로서 政治的 테러에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段階에서 테러는 革命的 體制的 存續을 보증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그 第一次的 諸機能은 革命的인 反對分子들을 제거하고 나아가서는 潛在的 敵에 의한 敵對的 行動을 억제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 있어서 테러의 사용은 그 후의 動員段階에서의 테러 사용 보다도 革命的 諸體制的 뚜렷한 특징이다. 테러는 自衛權의 延長이며 또한 對內的 및 對外的 敵에 대한 公開的 戰爭權으로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共產主義 엘리트에게 있어서 防禦와 攻擊間의 境界는 순수한 의미에서 技術的인 것이며 그 境界를 그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테러에 의한 支配만으로 共產主義 社會를 계속해서 이끌어갈 수는 없는 것이었다. 특히 共產主義體制에 의해서 성숙된 經濟發展은 國家의 自律性을 증가시켰고 또한 숙련된 勞動者들의 訓練은 이데올로기적 轉移文化(transfer culture)를 위해서 채택된 諸政策의 過渡的 또는 意圖되지 않았던 結果로서 나타났다.<sup>34)</sup>

「위로 부터의 革命」은 초기에 있어서 資源과 大衆을 쉽게 동원할 수 있었지만 테크놀러지와 社會의 構造的 發展은 動員體制에 대해서 한계를 부과하고 있다. 대중에 있어서 서서히 상승된 기대와 그것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그들의 요구는 결코 무시될 수 없는 것이다. 指導者들에 의한 일방적인 이데올로기의 고취와 주입, 그리고 테러에 의한 강압만으로 體制를 維持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곧 體制的 瓦解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抑壓力에 의한 一面的 支配는 止揚되지 않을 수 없다.<sup>35)</sup>

## 2) 後期動員段階

共產主義 政治體系가 動員段階를 경과함에 따라서 公共政策의 手段으로서의 政治的 테러의 사용이 두드러지게 減小된다. 例컨데 蘇聯과 東歐의 諸共產國家의 政治體系들은 이미 이러한 段階에 접어들었지만 中共, 北韓, 큐바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러한 段階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後期動員段階(Post-mobilization stage)에서 政治的 테러의 不使用은 後期動員段階의 動的 側面을 特徵지우는 體系에 있어서의 다른 諸變化와 符合되는 것이다.<sup>36)</sup>

政治的 테러는 여러 가지 形態로 존재하지만 최후의 手段으로서 保留되고 있다. 이것은 매우 큰 變化임에 틀림없다. 다시 말해서 政治的 테러는 體制的 存續을 위해서만 사용된다. 이러한 體系建設과 安定段階는 社會的 諸傳統과 諸神話의 創出을 수반한다. 計劃的 強壓의 諸形態가 이

34) Alexander Dallin and George W. Breslauer, "Political Terror in the post-Mobilization Stage", in Johnson, (ed.), p.197.

35) 李容弼, "北韓政治體制的 變化展望", 「北韓政治」, 大旺社, 1982, p.239.

36) David E. Apter, Choice and the Politics of Alloca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1), p.143.

前에 있어서의 姿意的 強壓을 代置하게 된다. 例컨데 司法制度와 法的 諸規範의 役割, 正服警察의 일상적인 일, 諸形態의 社會的인 壓力과 公衆의 분노 속에서 보여진다. 그리고 강제적인 權力 대신에 상대적으로 規範的이고 物質的인 힘에 더 크게 의존하게 된다.<sup>37)</sup>

이 段階에서는 經濟的 發展은 점차로 自給하게 (self-sustaining) 되고 비효과적인 強壓的인 動員에 더이상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더구나 모든 產業社會는 役割期待의 안정된 模型을 필요로 하거나 궁극적으로는 촉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 엘리트는 실제 문제로서 이데올로기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였던 다른 變形目標들을 결국은 소홀히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게 된다. 한편으로, 政權과 社會는 “구체적인 一體感”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強壓은 權力을 공고히 하거나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反體制를 통제하는 데 기여한다. 더우기, 발달된 더 큰 資源 기반은 強壓的인 權力으로 부터 物質的인 힘이나 자극으로 부분적인 變化를 가능하게 한다. 반면, 政權에 의하여 강력하게 추진했던, 社會化 過程을 아마도 規範的인 權力에 대한 비슷한 變化를 가능하게 하는 충분한 默從을 보증해 준다. 즉 이데올로기는 점차적으로, 以前의 疏外에도 불구하고, 規範的인 支持의 源泉이 되는 안정된 價值體系 (Chalmers Johnson의 공식에서 사용하는)로 변한다.<sup>38)</sup>

확실히, 政策決定者들은 새롭고 어려운 選擇들을 해야하는 필요성에 직면하게 된다. 테러의 감소에 대한 壓力이 많아진다. 소련과 東歐에서 後期動員段階의 경험은 이 觀點을 支持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政治的 테러의 감소는 共產主義 政權의 正統性을 강화시키고 명백한 反體制의 量을 현저히 증가시켰다.<sup>39)</sup>

엘리트는 전형적으로 이전에 經濟的 效率性의 고려에 두었던 것 보다는도 生産, 分配와 行政의 合理化, 그리고 技術的이고 科學的인 革新에 더 큰 비중을 둔다. 앵터 (David Apter)가 지적한 바와 같이, 情報과 強壓 사이에 反對의 관계를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다.<sup>40)</sup>

#### IV. 共產主義體制的 內在的 危機의 本質

##### 1. 政治的 側面 : 1黨獨裁와 國家官僚體制

마르크스는 어느 한 社會에 있어서 그 社會의 지배적인 生産樣式은 반드시 그에 따른 利益과

37) 李容弼, “共產主義政治體系的 比較分析”, 「北方研究論叢」, 第一卷 第一號 (1975), p.20.

38) Alexander Dallin and George W. Breslauer, op. cit., p.196.

39) Ibid., p.197.

40) David E. Apter, The Politics of Modernization (Chicago, 1965), p.40.

그에 상충하는 利益을 낳으며 이것이 社會를 여러 대립하는 階級으로 분열시키는 데, 지배적인 生産樣式을 장악하고 있는 階級은 그들의 利益을 보호하기 위해 國家機關(政府와 法律)을 만들어 非支配的 階級을 억압 내지 착취한다고 보았다. 바꿔말하여 國家는 한 지배계급이 자기계급의 이익을 옹호하고 다른 계급을 억압하기 위한 조직이며 모든 實定法은 이 目的을 위한 道具라는 것이다. 그런데 지배계급은 바로 이 국가기관을 장악하고 있어서 결코 “歷史의 無臺에서 제발로 걸어 나가지 않으며” 革命에 의해서만 타도된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資本主義가 고도로 발달한 先進工業國家에서 자본가와 프롤레타리아의 <階級鬭爭>이 첨예화하여 <階級革命>이 먼저 발생할 것이라고 보았다.<sup>41)</sup>

그는 프롤레타리아 革命이 성공하면 프롤레타리아가 政權을 장악, 지배계급을 구성하고 重要 産業수단을 社會化시키고 구지배계급인 부르주아들이 다시 政權을 잡을 능력이 없도록 無力化시키기 위해서 탄압을 하는 데에 權力을 사용한다. 이러한 프롤레타리아 獨裁는 共產主義로 넘어가는 過渡期에 있어서의 유일한 支配形態라는 것이다. 그래서 共產主義에서는 경제적 不平等을 바탕으로 한 社會階級 그 自體가 사라지며 따라서 社會階級을 바탕으로 한 國家도 소멸된다고 보았다.

레닌은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주아 支配國家를 없애고 프롤레타리아 支配國家를 수립한 후에는 부르주아의 일체의 反抗, 報復, 및 復活을 強權으로 탄압함으로써 그들은 영원히 말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프롤레타리아에게는 國家權力 즉 中央集權的인 權力組織, 暴力組織이 必要하지만 착취자의 反抗을 억압하기 위해서, 그리고 社會主義經濟를 조직하는 사업에 있어서 방대한 「人民大衆」 즉 농민, 小부르주아, 半프롤레타리아를 지도하기 위해서는 프롤레타리아 獨裁가 必要하다고 보았다.<sup>42)</sup>

10月革命 직후 레닌의 獨裁化는 러시아가 직면했던 가혹한 상황속에서 진행되었다. 레닌이 武力으로 權力을 장악했을 때 러시아의 인구는 1억 4만이었으며, 그중 80%는 농민이었으며, 이 농민중의 70%는 문맹자였다. 그리고 레닌이 의존해야 할 노동자수는 극소수였다. 오늘날의 소련측 계산에 의하면 10월혁명 전야에 공업노동자는 350만명 정도였으며 운수, 통신, 건설부문의 노동자까지 합치면 약 850만명이었다. 그 위에 세계大戰에 의해 경제는 파괴되고 빈곤과 기아가 전국에 만연하고 있었다. 權力은 장악했지만 볼셰비키黨內의 각 分派간에는 休戰문제, 社會主義政黨들과의 聯立政府구성문제, 土地分配문제, 社會主義建設의 方式문제, 國內의 民族문제 등의 해결을 둘러싸고 갈등과 혼미를 거듭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黨의 統一과 지도권강화가 시급해졌다.<sup>43)</sup> 1918~21년에는 內戰이 일어나 여기서 少數黨으로 살아남은 처지에서 승

41) 金學俊, 蘇聯政治論(서울:一志社, 1976), pp.60~61.

42) 全得柱, 이데올로기론(서울:박영사, 1982), pp.198~199.

43) 梁好民, “레닌主義의 本質.”, 康仁德外 共產主義批判(서울:극동문제연구소, 1982), pp.120~121.

리하기 위하여 一黨獨裁의 요소를 강화시킴으로써 民主主義의 자유는 모든 면에서 억압을 당했다. 마침내 1921년 3월 黨 제 10차 大會에서는 「黨의 統一」과 黨內「分派活動의 禁止」에 관한 레닌의 決議案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政黨은 民主主義의 社會主義政黨과 대립됨은 물론, 「思想과 行動의 統一은 正教信奉이요, 맹목적 복종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라든가, 또는 「黨이 강대해지면 黨內에서 討論의 절대적인 자유가 필요해진다」고 하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주장을 거부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權力體制가 中央集權化·寡頭化·官僚化로 타락할 것은 명백했다.

스탈린은 자본주의 국가의 포위속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를 수행할 수 있는 國家組織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一國社會主義建設論을 제기했다.<sup>44)</sup> 그는 필연적으로 마르크스·엥겔스 및 레닌의 古典의인 「國家消滅論」을 수정하게 됐다. 그는 1936년 새로운 憲法을 公布하였을 때 國家消滅論을 공격하면서 「소비에트 國家는 마르크스도 레닌도 미처 예기치 못했던 새로운 형태」라고 주장하였다. 한발자국 더 나아가 그는 「기존의 국가관은 非共產世界에 유효한 것이지만 社會特殊層인 奴隸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사회전체가 국가를 자본주의의 포위로 부터 보호하고, 보다 높은 段階의 共產主義로 이끌어 가려는 국가에서는 國家消滅論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스탈린의 國家強化論은 프롤레타리아獨裁의 개념에도 커다란 修正을 가져왔다. 그는 프롤레타리아獨裁가 본질적으로 프롤레타리아의 지도세력인 前衛隊의 獨裁이며, 黨獨裁라고 공인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獨裁를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黨獨裁로 전락시켰다. 그가 레닌의 프롤레타리아獨裁의 개념을 黨獨裁의 개념으로 전락시켰음은 1人獨裁者의 支配를 黨이라는 集團의 獨裁처럼 위장하여 합리화하는데 큰 구실을 하였다. 黨이 프롤레타리아의 代表로 자처하고 또 獨裁者가 黨의 代表로 등장함으로써 결국 독재자의 意思가 黨의 의사로 되고 나아가서는 黨의 意思가 階級全體의 意思로 되어 1人獨裁를 합리화하였다. 스탈린은 그후 흐루시초프에 의해 格下運動이 전개되나 그가 공산정치 체제에 있어 黨獨裁의 基盤을 구축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sup>45)</sup>

한편 蘇聯은 革命 직후부터 官僚에 바탕을 둔 고도의 中央集權的인 國家를 발전시켜 왔다. 오늘날의 소련이 하나의 〈行政國家〉 또는 〈官僚國家〉로 불리거나 또는 蘇聯社會는 “최고도로 官僚制化되어 있다”라고 평가되고 있는 것도 바로 그 까닭이다. 오늘날의 官僚의 數는 1천만에서 1천 5백만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up>46)</sup> 스탈린의 一國社會主義建設論에 입각한 工業化와 農業의 集團化가 시작된 후 소련의 경우 政府와 黨의 機構는 비대해졌다.

44) 金甲喆, “스탈린主義의 本質”, *ibid.*, p.139.

45) 金永俊, 革命이메올로기와 葛藤,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2), pp.138 ~ 139.

46) 金學俊, “蘇聯의 軍과 黨·官僚”, *新東亞* '83.1, p.318.



이들은 黨의 청사진에 따라 共產社會를 건설하는 과업을 수행했다. 여기에다 모든 산업분야가 정부운영이기에 여기서 산업을 관리하는 이른바 <技術 인텔리겐찌아(technical intelligent-ia)> 계급이 성장하게 됐다. 이처럼 오늘날의 소련은 黨僚는 물론이고 기술, 행정인텔리겐차가 하나의 特權계급으로 성장했다.

볼프강 레온하르트(Wolfgang, Leonhard)는 「스탈린 이후의 소련」(The Kremulin Since Stalin 1959)이란 책에서 소련정치체제를 떠받고 있는 「기둥」(Pillar)으로 黨 官僚機構·經濟 官僚·政府 官僚機構·軍 官僚機構·秘密警察 官僚機構의 다섯을 지적했다.<sup>47)</sup> 한편 로저 페티브리지(Roger Pethybridge)는 「소련정치의 관건」(A Key to Soviet Politics, 1962)이란 책에서 당 관료·경제 관료 및 정부 관료·군 관료가 중요한 이익단체라고 부르고 기술엘리트 및 경찰관료를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이익단체라고 불렀다.<sup>48)</sup> 이 두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결국 소련정권은 하나의 大型化한 黨·軍·國家官僚體制라는 것이다.

그러나 소련정치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당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소련사회에 있어서 권력의 궁극적 원천은 소련공산당에 있다. 소비에트체제에 있어서 당의 독점적 지위는 「소련공산당은 공산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 있어서 노동자의 전위대이며 또한 사회적 국가적 노동자 조직의 지도적 핵심」이라는 소련 헌법 제126조에 명시되어 있다.<sup>49)</sup> 스탈린도 이 점을 부연하여 「단 하나의 중요한 정치적 또는 조직적 문제도 당의 지시 없이는 결정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당이 최종적 결정을 내리고 정부는 당의 대행기관으로서 당의 결정을 수행할 뿐이다. 이점은 비단 정치와 경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인간생활의 모든 국면이 당의 권위와 관심의 영역속에 포함된다. 한마디로 요약하여 당은 정치권력을 완전히 독점하고 있으며 어떠한 경쟁적 조직이나 영향이나 그룹도 용납되지 않는다. 당·군관계 역시 당과 정부의 관계처럼 黨의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비단 소련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예외없이 공산주의체제는 공통적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현대공산체제는 일당독재라는 權力의 獨占化의 化石化된 관료체제의 문제로 인해 體制正統性的 危機를 안고 있다.

47) Wolfgang Leonhard, Trans by Elizabeth Wiskeman and Marian Jackson, The Kremulin Since Stalin (New York: Alfred A Praeger, 1962) Ch. I

48) Roger Pethybridge, A Key to Soviet Politics: The Crisis of the Parti - Party Group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2), p.19.

49) 소련 헌법 제126조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Which is the vanguard of the working People in their struggle to build communist society, and is the leading core of all organizations of the working people, both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의 구실아래 공산당의 권력독점은 과두정치, 또는 일인독재체제로 전락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중의 현재적 및 잠재적 저항을 극소화시키고, 나아가 일당체제에 대한 權威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치테러를 주요소로 하는 물리적 폭력과 정신적 刺戟을 배합하여 정치적 統制를 강화할 수 밖에 없다. 착취와 억압이 없는 풍요한 사회주의 사회라는 이데올로기적 간판아래 制度化시켜 놓은 공산당의 권력독점은 정치적으로 인민대중의 자발적 支持결여로 집약되는 정통성의 危機를 노정하게 된다. 여기에다 공산주의체제는 관료제화 경향이 가져오는 病理性(pathology)을 추가로 안고 있다. 산업주의의 세례를 받은 공산주의체제들은 合理性과 多元化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나 一黨體制下에서는 오히려 集權化(Centralization)와 권위주의경향이 심화되어 <포로수용소의 기술체제>의 노예가 되버리는 이른바 「化石化 된 관료제」(ossified bureaucracy)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sup>50)</sup>

그동안 공산정치체제는 일반적으로 정통성문제에 대하여 세가지 접근방법을 채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첫째는 민족주의 감정에 호소해 보는 경우다.<sup>51)</sup> 둘째의 접근방법은 일당체제내에 民主化 요소를 가미코자 하는 기도이다.<sup>52)</sup> 셋째의 정통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주민의 생활수준의 향상을 기도하는 것이다.<sup>53)</sup>

그러나 그 성과는 미미하기 그지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이유는 본격적인 체제개혁을 단행하지 못한채 부분적 수정으로 대응하려는데서 더욱 문제만 심각해지고 있어 날이 갈수록 緣木求魚적으로 목표와 현실간의 갭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는 1980~81년의 폴란드 自由化運動을 통해서 공산정치체제의 정통성의 위기를 확인할 수 있다. 폴란드 자유화운동은 과거의 경우와 달리 노동자, 지식인, 청소년 및 농민으로 이어지는 汎國民的 體制改革運動이라는 점에서 그 특색이 있다. 1970년대에 斷續적으로 이어졌던 改革運動이 그렇듯이 80~81년의 폴란드 사회의 경우도 그 최초의 단서는 肉類危機와 연관된 소비생활의 파탄에서 비롯되었으나 그것이 열도를 가하면서, 體制에 대한 누적된 불만의 분출로 이어져 끝내 정치적 성격의 대중운동으로 번져간 것이다.<sup>54)</sup>

폴란드사태가 함축하는 진정한 의미는 그것이 진정한 프롤레타리아革命的의 성격을 띄었다는 것이며, 그 대상이 부르주아政權이 아니라 바로 프롤레타리아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배하던 黨・軍・國家官僚體制였다는 것이다. 러시아革命이 프롤레타리아의 이름을 빌렸을 뿐 진정한 프

50) 安秉永, “黨과 國家官僚體制的 分析”, 국제문제, 81호, 1977.5. p.66.

51) 전형적인 예는 루마니아인메 차우세스크대통령은 대내적으로 스탈린주의 통치와 더불어 소련에 대하여 베사라비아 지방의 반환을 요구하는 등 민족주의 감정을 자극하여 정치적 정통성을 획득코자 한다.

52) 이러한 시도는 유고, 헝가리, 체코에서 시도 되었다.

53) 이 노력은 동구, 소련, 중공 등에서 우선 순위를 두고 추진되고 있다.

54) 安秉永, 現代 共產主義研究. op. cit., pp.256 ~ 258.

롤레타리아 革命이 아니었음을 상기할때 共產獨裁에 항거한 건전한 프롤레타리아 革命이 바로 共產圈 內部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은 共產主義 이데올로기의 神話가 하루 아침에 무너짐을 뜻한다.<sup>55)</sup>

비록 자초하고 말았지만 폴란드 自由化運動은 전통적인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입장에서 전혀 상상하기도 어려운 적지않은 변화를 몰고왔다. 이들 모든 변화를 한마디로 결론지워 말하면 레닌主義的 統治原理의 根幹인 黨獨裁體制的 瓦解라고 볼 수 있다. 레닌주의에 따르면 당이 프롤레타리아 獨裁의 主體이며 당의 獨裁權에 대한 어떠한 組織的 制御裝置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폴란드사태에 있어 현저하게 드러난 黨獨裁權에 대한 變革은 ① 自由勞組의 출범에서 비롯된 당의 정치적 권위상실 ② 自律經營權의 요구에서 표상되는 Nomenklatura System의 와해와 ③ 당의 취약한 民衆的 基盤을 위협하는 自由選舉의 요구 등에서 극적으로 표현된다.<sup>56)</sup>

결국 폴란드의 자유화운동은 東歐의 宗主權을 주장하는 소련의 부추김에 따라 폴란드의 黨과 軍의 지도자들이 별거벗은 힘에 의하여 질식되고 말았다. 그리고는 Jarusełski 장군이 당의 지도자로 응립되어 軍部支配體制的 폴란드로 들어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로서 동구권에서 최초의 共產主義型 軍事獨裁가 서서히 개막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당의 민간인이 군을 지배해야 한다는 共產黨敎理의 주요한 일각이 무너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앞으로 공산정치체제에 있어 당의 정치적 정통성이 땅에 떨어지고 이데올로기가 빛을 바래 더 이상 체제를 지켜나갈 수 없는 공산주의 정권의 경우 그것이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과도적 조치로써 군사독재의 길을 택할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결정적 도전을 받고 있음을 뜻하며 공산주의본질이 훼손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2. 經濟的 側面 : 集權的 命令型 經濟體制的 限界

「마르크스」의 理論에 따르면 資本主義社會에서 일어나는 階級的 構造가 본질적으로 生産手段의 私有化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자본주의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제도적으로 개혁하기 위하여는 필연적으로 生産수단의 私有化를 근절시켜야 한다. 이러한 理念의 制度的 表現이 蘇聯 및 동구의 重要生産수단의 國有化와 計劃經濟의 채용 그리고 農業의 集團化로 나타났다.

지상에서 최초로 공산화에 성공한 소련은 共產主義라는 혁명적 이데올로기의 轉移文化 內容을 마련하는데 항상 典範을 보였다.<sup>57)</sup>

55) 폴란드의 노동자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결사체 구성하여 그들의 권익을 위해 정치과정에서 투신한 것을 혁명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56) 安秉永, op. cit., pp.261 ~ 262.

57) 安秉永, “마르크스 資本論의 終焉” 新東亞.

따라서 크고 작은 個人企業을 國有化하고 농업을 집단화하는데도 앞장섰으며 그것들을 다시 東歐社會에 강요했다. 소련의 경우 특히 농업의 집단화과정은 피로 얼룩진 전대미문의 強權과 이에 따른 희생의 역정이었다. 소련은 1928년 농업집단화를 시작하여 1931년 중반 전농가의 52.7%가 집단화되었으며 1936년 90%에 이른다. 스탈린은 농업의 집단화를 위하여 강권의 발동과 함께 세정의 혜택 및 선전 등을 통한 실득을 겸용했으나 끝내 1천만명 가까운 人命의 희생을 안고 이를 성사 시켰다.<sup>58)</sup>

동구라파의 경우 기업의 국유화나 농업의 집단화가 이루어진 과정은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어느 경우에도 적지 않은 저항이 따랐다. 이들 나라의 경우도 강제력 없이는 이루어지기 불가능했으며 특기할 것은 유고슬라비아와 폴란드의 경우 끝내 농업집단화가 실패했다는 것이다. 두나라가 다초기에는 강제력에 의한 집단화를 시도하였으나 농민들의 저항이 워낙 컸다. 뿐만 아니라 강권발동에 의해 집단화를 급속히 진척시켰으나 집단화된 농장에서의 농업생산력이 너무 뒤져 現實적으로 그중 원하는 자에게 自營農으로 환원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여기서 농민집단의 성격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며 아울러 共產主義 이데올로기의 한계를 읽을 수 있는 것이다.

食糧危機는 실제로 이제 소련, 동구를 비롯한 모든 공산국가들이 피하기 어려운 고질적인 질환이 되고 있는데 그 主된 原因은 농업정책의 실패에 있기보다 농업집단화에 의한 生産性低下에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그 例로서 소련은 지난 4년동안 계속된 흉작으로 식량 부족사태가 심각하다. 한때 세계최대 식량수출국의 하나였던 소련이 지금은 식량소비량의 4분의 1 이상을 西方국가들로부터 수입하고 있다.<sup>59)</sup> 소련이 이처럼 허덕이는 이유는 무엇보다 4년 잇달아 기상조건이 나쁜 탓도 있겠으나 크레몰린 지도자들이 인정한대로 國營農場의 생산성 저하에 큰 이유가 있다. 높은 생산성에 대한 아무런 보상이 없는 노동자들은 어느 누구도 열심히 일하려 하지 않는다. 西方경제의 불황요인은 수요가 일어나지 않고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소련경제의 침체요인은 수요는 있되 노동자의 근로의욕 감퇴로 생산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소련 및 동구 대부분의 나라에 있어 耕作이 허가된 間前의 손바닥만한 땅에서 여가중의 自作에 의하여 얻어진 수확이 몇몇 농업생산품의 경우 전국산출량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소련의 농업은 1978년에 공표된 숫자에 의하면 소련의 全耕地面積의 1%에 미달하는 自留地에서 감자가 總生産의 61%, 野藥이 29%, 肉類 29%, 우유 29%, 계란은 34%가 생산되고 있다.<sup>60)</sup>

58) 멀·페인소드著 김준엽역, 蘇聯統治史(서울:育法社, 1975), pp.597~601.

59) 東亞日本. 82.11.17, "食糧기근:배고픈 蘇聯경제"

60) 寺谷弘壬著, 李昶雨역, 소련의 内外政策(서울:養英閣, 1983), p.90.

이와함께 소련의 마르크스主義者들은 中央當局에 의한 計劃命令經濟政策을 추진했다. 이들은 市場메카니즘을 生産의 無政府性이란 한마디로 거부하고 이에 대신할 것으로서 계획기구를 도입한 것이다. 계획기구는 일의 합리적 분담관계에 의하여 형성되는 조직인 公式組織 (formal organization)의 기능을 통하여 경제적 조화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조직의 말단에서 포착된 정보는 조직의 하이에라키를 따라 상부로 전달된다. 국가계획위원회 또는 (흔히 스탈린, 金日成 같은 독재자에 그 權能<sup>61</sup>이 빼앗기는 수가 많지만) 그 비슷한 最終行爲 決定權者 또는 집단에 전달된 그 정보는 다른 정보와 종합되고 분석된 끝에 命令이란 형태로 정보전달의 긴 채널을 거쳐 행위의 말단에 전달되어 대응조치가 취해진다. 스탈린 치하의 소련에서의 경제적 결정은 계획위원회의 민주적 토의에 토대를 둔 것이 아니라 독재자의 自意에 순전히 의존하는 것이며 또 흔히 그 결정은 긴 채널을 통해 애써 올라온 정보를 토대로 한 것도 아니었다. 중간층 또는 하부에서 그 명령이 조정 또는 수정되는 일은 없으며 모든 권한은 조직의 頂上을 매개로 하여 독재자에게 집중화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集權的 命令型 經濟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러한 기형적인 조직에 공산주의 경제의 非效率, 그리고 發展限界가 뿌리박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集權的 命令型 經濟體制下的 소련과 東歐 6 개 COMECON (共產圈相互經濟委員會) 국가들 (불가리아, 체코, 東獨,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의 경제사정은 그동안 별로 눈에 띄는 성장을 보이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은 위에 언급한 만성적인 食糧 부족사태에 직면해있다.

그들의 對外부채도 70년의 70억달러에서 현재 7백 20억달러로 10배나 늘어났다.

그동안 군사력의 팽창과 경제성장률의 저하로 고통을 겪어온 소련경제는 계속된 흉작으로 더욱 심각한 소비재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국영상점 앞의 장사진, 국영상점 안의 빈 선반, 항상 준비되어 있고 꽉차있는 구매대기자 명단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소비재부족은 戰後기간 동안에 한번도 사라진 적이 없다. 최근에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브레즈네프」의 집권기간 동안에도 우유를 짜는 아가씨가 옷이 없어서 침대에 까는 천을 휘감고 일을 하며 학생들이 불펜이 없어서 논문을 못 써내는 일이 일어났을 정도로 소비재부족이 심각하였다.<sup>61)</sup> 소련경제의 당면문제의 원인은 기술면에서의 제약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도 있으나 근본적인 것은 중앙집권적 명령형 경제체제에서 발생하는 자원의 비합리적 배분, 유인의 결여 및 그에 따른 생산성의 저하이다. 소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5년의 「코시긴 개혁」 이래 지금까지 14번의 경제개혁을 시도해왔으나 번번히 실패하고 말았다. 그 까닭은 이 「개혁」들이 모두 중앙집권적 경제계획절차의 변경으로 끝났을 뿐 이고 경제운영의 분권화와 대폭적인 자원배분정책의 수정에는 제대로 손도 대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61) 李豐, “蘇聯經濟危機說의 虛實,” 新東亞, 83.1, pp.329-336.

東歐諸國의 경우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제개혁을 추진해 왔다. 그 하나는 이른바 「中央管理의 合理化模型」(rationalized model of central management)이며<sup>62)</sup> 다른 하나는 보다 진취적인 계획과 국가관여의 틀속의 「市場社會主義模型」(model of a market socialism within framework planning and state intervention)이다.<sup>63)</sup>

이러한 경제개혁은 실제로 당국의 계획만큼 진전되지 못했으나 非命令型(noncommand) 經濟秩序로의 轉度를 재촉하였으며 특히 權限變化的 慣行과 기업의 자율적 결정권이 점차 강조됨에 따라 경제정책 결정과정의 분권화, 민주화의 기운이 보다 두드러지게 되었다. 또한 中央集權的 經濟計劃制度의 弛緩은 사회체제내에 존재하는 複合的, 多元的 利益構造의 묵시적 안정을 전제 하므로서 정치집단의 활성화를 크게 자극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개혁은 본질적으로 社會主義體制를 위협하게 된다고 보기에 대개 실패 내지 축소가 되어 경제체제의 기본골격은 바꾸지 못하게 되며 경제위기는 심화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中共 역시 최근 제 6기 全人大會(83.6.16~18)에서 趙紫陽수상이 밝힌 바에 의하면 中央集權的 命令經濟體制를 分權化하여 각 기업의 자주성을 강화하고 시장기능을 도입하고 보니 많은 中共企業이 부실함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창의력을 발휘하지 않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생산량이나 달성하려 하는 사회주의 경제가 지닌 본원적 취약성에 있다는 것이다.<sup>64)</sup>

철저한 集權的 命令型 經濟體制를 유지해 온 北韓經濟의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어떤 공산국이 보다도 더 심각하다는 것은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지적되고 있다.

결국 공산주의체제는 집권적 명령형 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자본주의와의 역사적 화해를 통해서 변신하든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포기를 뜻함 아니면 경제파탄과 더불어 붕괴할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62) 이 모델에 속하는 나라는 폴란드, 동독, 불가리아 및 루마니아 등이며, 이 개혁안은 集權化정도의 이완(權限委任), 컴퓨터도입, 拘束的인 中央指標(central indicator)의 數的 감축과 結合的 企業指標(예 收益性)로의 점진적 이전, 제약관계의 중시·신용·세계 등 「經濟手段」의 기능강화를 제안하면서 중앙기관은 기업을 강제로 구속하기 보다 영향력을 통한 간접통제를 할 것을 요구했다.

63) 이 모델에 속하는 나라는 체코슬로바키아와 헝가리가 속한다. 이에 따르면 무엇보다 가 격결정이 분권화되고 성과의 주된 지표였던 計劃成就(目標達成)의 척도대신 기업이윤의 극대화가 가장 중시되었다. 국가는 가능한한 장기적 안목에서 한 「競技規則」(rules of game)의 감시와 巨視的 경제구조 및 비시장분야에 대한 계획 등에 종사하면서 기업활동에 대한 간섭권을 유보했다. 유고슬라비아의 경우 일종의 市場社會主義 類型의 경제개혁을 단행하였으며, 특히 그 특유의 자치행정관리 행정제도와 연관하여 기업의 독자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64) 康仁德, "中共 제 6기 全人大會", 共產圈研究, 83.7. pp.10~11.

### 3. 社會的 側面 : 새로운 階級社會

「階級없는 社會」라는 至上目標을 내건 모든 공산국가가 경험해야 했던 가장 큰 자기모순은 權力型 「새로운 계급」의 출현이며 이로 인해 공산주의의 첫번째 정치적 구호인 平等社會의 成就가 함축하고 있는 虛僞性이 세계 곳곳의 공산주의사회에서 드러나고 있다.

모든 공산국가들은 共產化의 초기단계에서는 급격한 사회변화에 휘말리게 된다. 기존의 지배 계급이 하루 아침에 정치사회적으로 전락하는데 반하여 사회적 저변을 형성했던 노동자와 농민 중 적지 않은 숫자가 정치바람을 타고 社會的 地位上昇의 기회를 포착했다. 또한 공산화 이후 계속된 產業化過程속에서 술한 농민들이 산업노동자로 충원되었고 이들은 우선 낙후한 농촌을 떠나 동태적인 도시생활에 접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얼마간의 지위향상을 만끽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산정권이 시간과 더불어 정착함에 따라 黨·國家官僚體制와 다양한 社會 經濟組織의 上層管理層들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그들은 자신의 既存利益을 지키기 위하여 온갖 수단을 아끼지 않았고, 이에 따라 노동자등 下層階級の 上向的 移動可能性은 점차 차단되기에 이른다. 階層構造가 다시 안정된 것이다.

1936년 新憲法이 공포되었을 때 스탈린은 「착취자階級」이 사라졌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소련을 비롯한 공산제국에서 위에서 언급한 새로운 계급이 탄생된 것이다. 이들 새 계급의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고발한 장본인은 한때 티토(J.B.TiTo)와 더불어 공산유고를 전설한 미로빈 질라스(M.Djilas)였다.<sup>65)</sup>

질라스는 베오그라드의 한 감옥속에서 집필한 「새로운 階級」(The New class, an Analysis of the Communist System)이라는 저서에서 당의 政治官僚를 주축으로 하는 이들 새로운 계급은 정치적·사회경제적 제 특권을 독점적으로 향유하며, 이들의 權力은 「지금까지의 다른 모든 계급의 권력보다도 보다 완전하고 그 계급적 환상이나 편견이 보다 철저하다」고 밝히고 있다.<sup>66)</sup> 이들 새로운 계급은 프롤레타리아의 이름으로 사회전체위에 군림하게 되는데 이들이 수립한 미증유의 獨占權은 사실상 프롤레타리아 그 자체에 대해 지배적인 것이다. 공산사회에 대한 獨占的 管理權을 장악한 이들은 점차 既存이익에 집착하는 한낱 탐욕스러운 관료群으로 전락하고 만다. 특히 소련의 새로운 지배계급인 소위「노멘클라투라」(Nomenklatura)에 대한

65) 安秉永, “共產圈 平等理念의 瓦解”, 경향신문사편, 大學과 思想(서울: 경향신문사, 1982), pp.53 ~ 54.

66) David Lane, The End of Social Inequality (Londar: George Allev & Unwin, 1982), p.135.

술한 실증적 연구는 이들 새로운 계급의 正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sup>67)</sup>

노멘클라투라에 속하는 사람들은 소련 社會에서 그 家族들을 포함하여 300萬名, 전 인구의 1.2% 정도이다. 그러나 어떠한 階層까지가 노멘클라투라에 속하는가는 명확하지 않다. 한 연구자에 의하면 「크게 보아 그 數는 약 600萬 즉 勞動人口의 약 5% 정도」라고 한다.<sup>68)</sup>

노멘클라투라의 頂上級의 生活은 資本主義社會보다 더 굉장하다. 1972년까지 소련 社會에서 상당히 높은 地位(世界經濟·國際關係研究所員)에 있던 M.S. 보스렌스키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人生의 기쁨에 好意를 보내는 書記長의 딸 가리나브레즈네프는 모스크바근교의 國有다차에서 손님에게 버턴 하나로 자동적으로 열리는 극히 고가의 모피가 가득 들어있는 벽상자를 보이는 것을 대단히 좋아한다고 한다. 그같은 의복을 소비에트市民이 볼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억만장자의 생활을 그린 영화에서만이다.」<sup>69)</sup>

이같은 특권을 가진 層이 그 특권을 탈취당하는 일은 좀처럼 없다. 가령 정치적으로 좌천한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는 '중요성을 갖는 연금수급자'라는 고액연금 수령자가 된다. 노멘클라투라 그자체는 世襲이 아니나 이 노멘클라투라는 集團의 귀속성이 세습되도록 되어있다. 즉 노멘클라투라 자체는 自家生産되는 중에 있다.

「데이비드·달린」은 「赤裸裸한 소련」에서 소련에는 4개의 계급이 있다고 하면서 이들 숫자를 통해 묘사했다. ① 黨·軍·國家官僚群 14% ② 노동자계급 22% ③ 농민계급 53% ④ 강제수용소勞奴계급 11%라는 것이다.<sup>70)</sup> 그는 이 계급간의 차이는 수입, 생활양식, 교육 및 고용시장에의 접근 가능성등에 있어 적지않은 편차를 보여준다고 한다. 1980~81년의 폴란드 사태도 노동자들이 그간 누적된 參與缺損과 이와 연관된 평등에의 욕구분출이었던 것이다.

결국 공산주의체제는 그들이 目標가치로 내세웠던 平等社會의 실현대신에 밀리탄트한 劃一社會를 구축하였다.<sup>71)</sup> 官製的 이데올로기와 階層的 官僚秩序는 창조적 사고와 사회적 다원주의의 출현을 그 씨앗부터 눌러버렸고 자유로운 정치과정을 閉塞시켰다. 이렇듯 비인간화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아직도 내세우는 평등사회는 정치적 구호는 이미 설득력을 잃은 빛바랜 神話임에 틀림없다.

67) 黨의 최상층부로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소련에서는 노멘클라투라라고 한다. 본래는 특권을 갖는 幹部 Post의 名簿라는 의미였으나 더욱 확대해석하여 그 특권적 지위에 관련되고 있는 사람들이 上意下達하는 시스템전반을 노멘클라투라라고 한다.

68) 李昶雨역, op. cit., pp.53 ~ 55.

69) Ibid 재인용

70) 李相斗, 「株式會社 蘇聯」의 經營戰略」 월간 중앙, 79.8. pp.196 ~ 197.

71) 安秉永, op. cit., pp.57 ~ 58.



## V. 結 論 : 現代共産主義의 어두운 未來

80~81년의 폴란드사태시 自由勞組의 파업노동자들은 그들의 공장 담벼락에 「만국의 노동자여 나를 용서하라 — 마르크스」라고 써붙인 현수막을 내걸었다고 한다.<sup>72)</sup> 금년에 실시한 「유고슬라비아」 청년들의 여론조사에서도 마르크스가 이 세상에 다시 부활한다면 「만국의 노동자여, 용서하라」고 사죄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전해진다.<sup>73)</sup> 이것은 幼想에서 깨어난 공산국가의 대중들이 자기들의 앞 世代를 유혹했던 19세기 세속적 메시아思想家와 그 현대의 執行代理人들을 상대로 외쳐진 통렬한 시니시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모든 공산국가에 있어 국가관료기구는 사라지기는 커녕 끝없이 팽창하고 있고 그들이 공언했던 평등 대신 획일화가 이들 사회의 징표가 되었고 필요에 따라 배분할 수 있는 富의 축적은 꿈으로 끝날 수 밖에 없는 虛像임이 이미 분명해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大衆의 覺醒일 수 있다.

그들은 「근로자의 당」임을 자처하는 공산당이 결코 「근로자의 당」이 아니라 오히려 그 근로자의 自主管理를 저지하는데 급급한 단순한 억압적 權力임을 폭로하고 있다.

공산체제는 결국 과거의 그 어떤 專制나 마찬가지로 軍事力과 「수용소群島」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관심끝만한 점이 없는 그저 그런 역사상 흔한 억압의 구조로 恐龍化하고 있는 것이다.

1956년 헝가리 봉기때 발족되었던 住民들의 자발적인 조직이나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의 봄」이 산출했던 住民의 自發性도, 80~81년의 폴란드의 自由化運動도 역시 權力 그 자체의 맹목적인 유지에만 급급해진 노멘클라의 탱크앞에 여지없이 목살되었다. 「해방」 「평등」 「自主管理」 또는 「억압없는 社會」라는 혁명의 敎說은 지나간 한 세기간의 혁명事例, 그 자체에 의해 通說的인 破産을 선고받은 셈이다.

공산주의자들은 흔히 그들이 프롤레타리아계급, 노동자 농민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한걸음 더나가 이들은 그들의 정권이 프롤레타리아계급 정권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소련 및 동구제국에 있어 당의 지도층의 사회적 구성을 보면 대체로 인텔리겐차와 화이트칼라의 비중이 계속 높아 지는데 비하여 노동자계급이나 농민은 오히려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예로 1975년 동독의 사회주의통일당(SED)의 제 11차 당대회에서 선출된 202명의 당중앙위원회의 정의원과 후보위원을 살펴보면 이들 중 명실상부한 노동자출신은 窮孔職에 종사하는 여성위원 「탐메」 한명 뿐이라는 사실이다.<sup>74)</sup> 실제로 정책형성 및 집행 과정에서 노동자의 참여도는 매우

72) 柳根一 “革命的 幻想과 타락”, 주간 조선, 81.11.29. pp.8~9.

73) 東亞日報, 83.3.14. “무너진 마르크스 豫言들”

74) 安秉永, “共産主義에 있어서 平等問題” 82.10.20.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주최 「社會主義 國家에 있어서의 平等問題」에 관한 학술발표회 발표원고.

낮은 현실이다. 이러한 노동자의 상대적 가치박탈의식(명등에의 욕구분출)이 지난 70년대 그리고 앞으로도 공산주의체제의 정통성의 위기를 가져왔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共産體制正統性의 危機를 가져오는 또 하나의 원인은 공산주의 經濟體制의 현실적 한계가 露 出된 것이다. 대부분의 공산국가가 만성적인 食糧부족, 소비생활의 파탄, 外債누증 등으로 인 해 최대의 危機속에 시달리고 있다. 이와같은 경제적 위기는 경직화된 集權的 命令經濟體制의 본질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비교경제체제의 시각에서 2차대전전 엇비슷한 경제발전수준으로 볼 수 있었던 西獨 과 東獨 및 오스트리아와 체코슬로바키아의 경우, 30여년이 지난 오늘날 西獨과 오스트리아의 경제수준이 각각 동독과 체코슬로바키아에 비해 현격하게 발전되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공산주의체제가 경제적 맥락에서본 체제경쟁에 있어 자본주의체제에 크게 뒤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제 공산주의 경제가 回生을 하기 위해서는 資本主義를 도입해야만 할 지경에 이른 것이다.

여기서 지금까지 논의한 문제점들을 토대로 볼 때, 결국 이들 여러문제점들은 共産主義體制의 內在的 危機要因인 것이다. 따라서 이들 문제점들은 결국 現代共産主義의 未來를 어둡게 하고 있으며 또 그 脫神話化過程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 Summary

### A Study on the Inner-Crisis of Communist Systems

*Chang-young Hann*

*Seong-joon Koh*

*Hang-won Kim*

This year is 100th since Marx died. There have been so many reports that the 100th anniversary of Marx's death was being marked in unforgettable ways. If Marx were to come back, what does he discover? Maybe he discovers that things aren't what he has expected.

What is the significance of Polish crisis in early 1980s? It has taught the world a lesson that is both stark and undeniable: as a means of organizing an economy and providing for the well-being of a citizenry, Communism is a failure. It is related to the dark future of communism.

The causes of Polish crisis are two: one is the fall of social status and the consciousness of frustration. The other is the continuous failure of Economic policy and the bankruptcy of national Economic life. If we interpretate the two causes on the thread of connection in communist system, the former implies the "equality" idea of communism is falseconsciousness. The latter means the practical limit of communist economic system.

Nowaday in Communist Societies, the dream of classless society is not practical. Rather as Millovan Djilas said, new class came in view. He sees the party as the incumbent institution of class rule: The new ownership is not the same as the political government, but is created and aided by that government. The use, enjoyment, and distribution of property is the privilege of the party and the party's top men. We call them Nomenklatura.

The alienation of the worker from his work is at least as great today at the plants in communist countries as it was in the Manchester textile mills that Engels studied in the mid-19th century.

The command economy, too is slowing down if not breaking down. No communist country has met the proclaimed goals of its Five-Year plan: The desired results that the economies were organized to achieve have simply failed to materialize. And the projections for the next ten years are even gloomier. So U.S.S.R and Eastern Europe try to reform the economic policy. But those reforms challenge the very essence of the system, which is totalitarianism. It is the dilemma of the communist countries hold.

What is the result of Soviet Communist System? The result is a tension and a paradox. On the one hand, inefficiency, stagnation and alienation are the

inevitable accompaniments of the centralization, elitism and repression that are necessary to carry out the first order of business: the preservation of power. On the other hand, the political system is well designed to be impervious to the consequences of the economic failure and social demoralization that are built into it.